

<https://doi.org/10.7236/IIBC.2016.16.6.295>

IIBC 2016-6-37

대학적응력 검사도구 척도 개발과 양호도 검증

The Development of Scales on Rating College Students' Adaptability and the Analysis of Technical Quality

김수연*

Soo-Yoen Ki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성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대학적응력 척도 개발의 절차를 소개하며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였다. 이 도구는 3단계의 척도 추출 과정 및 6단계의 문항 추출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추출 결과,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정서적 안정성, 진로정체성, 학업여건 안정성, 교수와의 관계, 교육서비스 만족도, 대학교육 만족도 등 8개 척도, 142개 문항 구성을 통해 대학적응력을 측정하였다. 4개 대학 1,95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도구의 양호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내적 일관성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65, 범위는 .742~.937로써 신뢰도가 매우 높다. 둘째, 개별 문항의 양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척도 및 하위요인별로 문항 점수와 총점 간 상관계수에 의한 문항 변별도를 구했으며, 평균은 .147~.841이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에 따른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 CFA모델의 RMSEA = .08~.09이고, 모든 부합도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함으로써 각 척도에 속하는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척도별 대학적응경향성과 중도탈락경향성 점수 차이에 기초한 공인타당도 검증 결과, 학업여건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 대학적응력 진단 도구는 대학생의 대학적응경향성과 중도탈락경향성을 타당하게 예측하는 도구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scribe the process for the instrument constr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cales on rating college students' adaptability and to analyze the technical qualities of the test.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inform students and institutions what is needed to college student's adjustment process into university and college life. The scales are tested by specialty group and statistical methods, and finally composed of 142 items, which measures 8 scales, the academic integration, the social integration into college, career identity, emotional stability, learning condition's stability, relationship with professors, satisfaction degree of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degree of college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1,959 students' responses from 4 colleges and universities.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cales which this study developed show high concurrent evidence with the college student's adaptability inventory for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based on various development process, specially rapid great change of college.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s the evidence based on internal structures of the scales. The Cronbach's α of the subscales is .965, from .742 to .937. The prediction model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ropout by 7 scal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05, except learning condition's stability. According to CFA Model, RMSEA= .08~.09. dependence factor variance are explained by this study's CFA model.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cales which this study developed are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for Korean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o predict their adaptability to college.

Key Words : Adaptability to College, Drop-out, Academic Persistence, Analysis of Technical Quality, Student Retention

*정희원, 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접수일자 : 2016년 11월 8일, 수정완료 : 2016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12월 9일

Received: 8 November, 2016 / Revised: 6 December, 2016 /

Accepted: 9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mirinea4sy@gmail.co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I University, Korea.

I. 서 론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 교육기관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대학적응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이나 진로를 찾아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는 개인의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동시에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대학의 관점에서 책무성과 재정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교육기관측면에서 학생이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하게 되면 이는 곧 재원의 상실과 정원관리 및 질적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중도탈락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1]

우리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 입학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학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른 대응이다.

대학입학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고등교육기관의 충원율 전망에 매우 위협적 요소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 69만 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30학년도의 학령인구는 2012학년도의 59.4% 수준인 41만 명까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2] 신입생 충원율 악화의 문제는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대학 교육기관 운영 측면에서 재학생의 보유하지 못하는 일, 즉 학업중단은 잠재적 학업지속자인 졸업자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대학생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이 7.6%이고, 4년제 일반대학이 4.0%로,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3]

대학이 재학생의 대학 적응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인적 자원 육성의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의미하며, 대학의 측면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교수-학습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선순환적 교육체계 구축과 대학의 안정적 재정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대학의 충원율은 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적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대학이 학생의 대학 적응을 지원하고 학생 보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관 내·외적 요인, 학생의 심리적인 요인

등의 복합적인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을 찾아내고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개인별 그리고 대학기관의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를 파악하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적응한 학생들의 학업목표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의 학업 적응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적응과 대조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도탈락을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5]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학적응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대학생의 대학적응력과 중도탈락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학 적응 자기보고형 검사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양호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타당도 높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대학생의 대학적응과 학업지속은 학생과 학업, 그리고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주제에 대하여 심리학적, 사회학적, 조직론적, 상호작용론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구체적인 대학 운영 전략 등이 소개되어 왔다.^{[6][7]}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변인들은 크게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으로 구분된다. 또는 개인적 요인, 가정배경요인, 대학생활 경험요인, 대학특성 요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8] 개인변인은 가치, 신념 등으로, 환경 변인은 상황적 요구, 상황적 제한, 사회적 지원 등으로 나누어 개념화한다.^[9]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생의 가정 환경 및 배경, 학습 및 성취동기와 대학에서의 관계 및 교육환경의 특성과 질 그리고 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등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1. 대학적응 이론에 근거한 요인 추출

이 연구에서는 요인을 크게 개인 배경 요인, 학업 요

인, 사회적 요인, 정서 요인, 진로 요인, 교육기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 배경 요인으로 성(性)이 학습자의 중도탈락과 학업지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국내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휴학확률이 높거나 반면에 남학생이 학업중단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기도 한다.^[11] 학생의 가정 배경 요인 즉,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가족의 구성 및 상호의존성 등이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12] 이외에도 Tinto 모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 및 가족의 지지는 대학 생활에서 학생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둘째, 개인의 학업능력 변인은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자신의 지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신뢰, 대학에서의 학업목표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 이 변인들은 학습성과 및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학업적 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소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생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념과 평가는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효능감은 학업목표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며,^[13]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포부 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14][15]} 학업지속경향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성적과 진로고민이 많을수록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11]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은 교육적 성취와 졸업 후 성과(진학, 취업,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변인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의 학습참여(student engagement)가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지속 또는 중도탈락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써, 최근 학습장면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정서(academic emotion)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Parker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학업적 정서를 측정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16]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써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제공된 자원을 일컫는 것으로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관계망 내의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대학에서 학업 과정 중 사회적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학교경험은 자

아존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증감 또한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17]

Astin은 학업지속은 교직원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동료 및 선후배와의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10]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동료와의 관계는 대학생활의 적응 및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학업성취를 예측할 할 뿐만 아니라^[18] 학업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적응과 학업지속 또는 중도탈락의 사회적 영향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수의 지원(Faculty Support)이다.^[19-21]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 신뢰(faculty trust)가 높은 수록 학습동기가 높았으며, 교수지도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았다.^[22]

넷째, 성격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과 접근 방법에 따라 정신분석학적 이론, 현상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이론, 특성이론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성이론 가정에서 시도된 McCrae & Costa의 BIG5(Big Five personality traits) 이론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의 특성은 5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5개 요인은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가지도 포괄하여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진로요인은 대학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도탈락 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에 의하면^[23] 학생들이 인지하는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진로를 위한 자기결정력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진로 성숙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 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24] 대학생활부적응과 진로성숙도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25]

여섯째, 조직론적 관점에서는 대학이 보유한 속성을 학생 중도탈락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대학의 구조와 규모, 교수 대 학생의 비율, 자원, 대학교육의 수준, 교수-학생의 관계 교육프로그램, 대학의 지원체계, 물리적 시설 및 환경, 학자금 지원 액수나 근로 장학금 지급 등이 학생의 사회화 및 성공적 학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다.^{[10][26]} 학생들의 대학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적인 요인이나 개별 학업적 요인들에 비해 중도탈락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만족도는 단

순한 학생의 주관적 평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27] 또한, 학생의 만족도는 학생 재학률, 학교에 대한 헌신, 학교에 대한 충성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졸업 이후 학교에 대한 태도, 구전(口傳)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29]}

2. 국내외 대학적응 관련 진단도구에 근거한 요인 추출

대학의 학생 보유 예측을 위하여 개발된 대표적 검사 도구로는 미국 Noel-Levitz Management System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 검사지(College Student Inventory : CSD)이다. CSI는 대학적응 예측 요인으로 학문적 동기, 사회적 동기, 학생 개인의 내적-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대학 측이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 등 4개 영역과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 측정 도구는 개별 대학 수준에서 학부교육의 질과 성과 진단을 위한 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다.^[30] 이 측정도구는 미국 University of Texas, Austin의 Center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 Engagement(CCCSE)에서 개발된 것으로 5개 진단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측정도구의 5개 진단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협력적 학습태도(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로써 수업참여 정도, 동료와의 교류, 강의실 밖에서 학습 등, 둘째, 학업에 대한 도전(academic challenge)으로써 도전적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학업 결과물인 성적, 공부시간, 등록학기, 자격증 수 등, 셋째, 학생-교수 상호작용(student-faculty interaction)으로써 학습 결과, 진로 계획, 학업 등에 대한 교수와 커뮤니케이션 등, 넷째, 학생의 노력(student effort)으로써 학습에 할애하는 시간, 준비, 학생지원 서비스 이용 등, 다섯째, 학습자 지원(support for learners)으로써, 대학에 대한 인식, 학내 카운셀링 및 지원서비스 등이다.

대학생활 적응 및 중도탈락 예측을 진단하기 위한 국내 연구로는 전문대학 신입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조기경고체계 개발연구의 신입생 보유검사도구가 대표적이다. 이 도구는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진로정체성, 가정의 지원, 지원에의 수용성, 대학만족도의 7개 영역 10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1][5]}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과정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이 도구를 통해 전문대학의 학습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도구에는 전문대학 교육의 특성과 전문대학생의 특징을 분석하여 학업 지속과 상관있는 휴학 및 자퇴계획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학습성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2개, 전문대학 2개 총 4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1,989명의 검사결과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1,989명이며, 여학생 1,210명(63.8%), 남학생 713명(35.8%)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적응력 진단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도탈락 이론과 국내외 학생유지 관련 검사도구 및 선행연구, 전문가 검증 등 3단계를 통하여 대학생의 대학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와 하위척도를 추출, 한국 대학의 현황과 특성에 최적화하여 구성하였다. 검사도구 척도를 추출 한 후, 검사도구의 척도별 문항 개발, 전문가 3인의 자문 및 내용타당도 검증, 연구대상인 대학생 예비검사 실시, 척도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등 6단계 거쳐 개인적 배경,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정서적 안정성, 학업여건 안정성, 진로정체성, 교수와의 관계, 교육서비스 만족도, 대학교육 만족도 등 9개 상위척도, 142개 문항으로 대학적응력 진단 검사도구의 주요 범주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타당도 척도로서 반응일관성 문항 11개와 유효성 진단 문항 3개를 포함하였다. 대학적응력 진단 검사도구는 Likert형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대학적응력이 낮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9와 AMOS 20.0을 활용하여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추정,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 및 문항점수와 총점 간 상관관계

수에 의한 변별도 추정, 요인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문항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X^2 값, RMSEA, SRMR, C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검사 점수는 전체 총점과 척도별 점수에 대한 백분위(percentile rank)로 보고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대학적응력 진단 도구가 학생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적응력 척도들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결과를 제시하면, 척도별 신뢰도 계수의 범위는 .742 ~ .937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매우 높다. 각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척도들도 .567 ~ .86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대학적응력 검사의 전체 신뢰도는 .965로 나타났다.

표 1. 내적일관성 신뢰도

Table 1.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 상위척도 및 하위척도 | 문항 수 | Cronbach's α |
|------------------|------|---------------------|
| 학문적 통합성 | 38 | .898 |
| 학업적 효능감 | 10 | .722 |
| 학업 수행 만족 | 5 | .567 |
| 기초학습능력 | 11 | .770 |
| 학습태도 및 학업정서 | 8 | .736 |
| 학업목표 인식 및 학업지속의향 | 4 | .730 |
| 사회적 통합성 | 17 | .861 |
| 개방성(개인적 성향) | 6 | .724 |
| 유대감 | 5 | .697 |
| 친구와의 관계 | 6 | .827 |
| 정서적 안정성 | 30 | .937 |
| 진로정체성 | 5 | .805 |
| 학업여건 안정성 | 9 | .742 |
| 경제적 안정성 | 3 | .715 |
| 가정의 정서적 지지 | 4 | .771 |
| 학업지속의 안정성 | 2 | .739 |
| 교수와의 관계 | 6 | .816 |
| 교육서비스 만족도 | 23 | .889 |
| 전공선택 만족 | 3 | .811 |
| 교육과정 만족 | 3 | .807 |
| 교수학습 만족 | 6 | .803 |
| 교육환경 만족 | 11 | .844 |
| 대학교육 만족도 | 14 | .911 |
| 대학에 대한 태도 | 5 | .705 |
| 성장에 대한 기대 | 5 | .856 |
| 대학선택 만족 | 4 | .861 |
| 전체 | 142 | .965 |

2. 타당도 검증 결과

가. 기술통계

전체 142개 문항(개인적 배경 영역 제외)의 요인별 평균 점수의 분포는 최고 125.2(학문적 통합성) ~ 최소 16.8점(진로정체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 통계치 분석 결과,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적인 점수 없이 적절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도구 개발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구인타당도 검증

대학적응력 검사도구 척도의 구성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척도 간 상관관계는 $r=.83$ 에서부터 $r=.93$ 으로 요인들 상호 간에 적절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 모델하의 척도들 간 상호상관행렬 및 각 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측정변인의 상호상관행렬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
| ① | 1 | | | | | | | | | | | | |
| ② | .66 | 1 | | | | | | | | | | | |
| ③ | .72 | .44 | 1 | | | | | | | | | | |
| ④ | .26 | .16 | .36 | 1 | | | | | | | | | |
| ⑤ | .44 | .27 | .62 | .22 | 1 | | | | | | | | |
| ⑥ | .36 | .22 | .50 | .18 | .31 | 1 | | | | | | | |
| ⑦ | .64 | .42 | .46 | .17 | .28 | .23 | 1 | | | | | | |
| ⑧ | .84 | .56 | .61 | .22 | .37 | .30 | .54 | 1 | | | | | |
| ⑨ | .69 | .46 | .50 | .18 | .31 | .25 | .44 | .58 | 1 | | | | |
| ⑩ | .70 | .46 | .50 | .18 | .31 | .25 | .45 | .59 | .48 | 1 | | | |
| ⑪ | .61 | .93 | .41 | .15 | .25 | .20 | .39 | .51 | .42 | .43 | 1 | | |
| ⑫ | .54 | .81 | .36 | .13 | .22 | .18 | .34 | .45 | .37 | .37 | .75 | 1 | |
| ⑬ | .35 | .52 | .23 | .08 | .14 | .12 | .22 | .29 | .24 | .24 | .49 | .43 | 10 |
| 평균 | 313.4 | 140.6 | 33.0 | 9.1 | 16.0 | 7.9 | 16.8 | 125.2 | 60.6 | 110.7 | 76.8 | 46.2 | 17.7 |
| 표준 편차 | 39.1 | 21.4 | 5.1 | 2.6 | 2.8 | 1.9 | 4.2 | 16.2 | 8.8 | 18.1 | 11.4 | 8.7 | 4.5 |

* $p < .05$

주: ①학생특성 ②대학특성 ③학업여건안정성 ④경제적안정성 ⑤가정의 정서적지지 ⑥학업지속안정성 ⑦진로정체성 ⑧학문적통합성 ⑨사회적통합성 ⑩정서적안정성 ⑪교육서비스만족도 ⑫대학교육만족도 ⑬교수와의관계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19.0의 다변인 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 모델하의 10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 정규분포성을 검

증하였다. 검증 결과, 단 변인별 왜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변인 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CFA모델의 RMSEA = .08~.09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CFA 모델의 부합도 검증
Table 3. Examination of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Model | NPAR | DF | CMIN | NC | TLI | CFI | SRMR | RMSEA(.08) | |
|-------|------|----|--------|-------|-----|-----|------|------------|-------|
| | | | | | | | | LO 90 | HI 90 |
| CFA | 33 | 32 | 477.56 | 14.92 | .89 | .93 | .05 | .08 | .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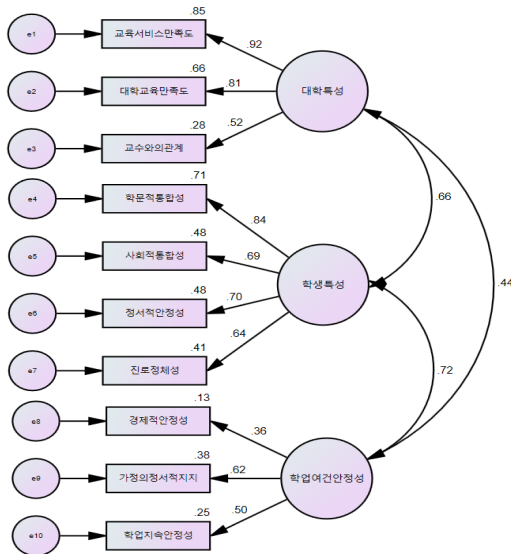


그림 1. CFA 모델
Fig. 1. CFA Model

그림에서 나타난 각 하위척도별 요인 부하량과 이론적 변수들 간 상호상관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하위척도가 포함된 CFA모델에서 10개 하위검사의 요인 부하량이 .36 ~ .92로 나타났으며, 상위 척도들 간 상관정도가 .44 ~ .72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적응력 CFA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하위척도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변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공인타당도 검증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사도구가 측정하는 특성들이 대학생 생활 적응과 중도탈락경향성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대학적응경향성 집단과 중도탈락경향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척도 및 하위 요인 점수에서 두 집단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 각 척도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 속하는 학생 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등분산성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으며,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고,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Welch-Aspin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여건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의 학생보유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대학적응경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도구의 구성척도는 학문적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 진로정체성, 정서적 안정성, 학업여건 안정성, 교수와의 관계, 교육서비스 만족도, 대학교육만족도 등 8개요인 총 1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의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대학적응경향성에는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기관 요인도 매개변인으로써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stin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장되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써 대학이 학생들의 대학적응에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연구의 대학만족도를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대학교육 만족도로 구분하였고, 하위척도도 세분화하여 학생들의 대학적응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기관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변화하는 대학환경과 학생들의 인식을 반영하였다. 이는 최근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와 대학교육만족도가 대학적응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셋째, 정서적 안정성의 변화 여부와 학업중단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학적응과 각종 사회경제적 성과 지표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고, 향후 연구 영역의 확대와 심화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도구의 측정학적 특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요인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요인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척도별 차이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요인은 학업여건 안정성 척도이다. 검사의 결과가 척도별로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업여건안정성 척도의 경우에도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앞으로 대학적응력 진단 척도의 가장 큰 기능은 예측타당도에 있으며, 결과타당도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검사가 학생들의 대학적응경향성의 특성을 정확히 측정해 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측해 줄 수 있는지 등 대학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의 타당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적응에 성공한 학생들과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대학 적응의 성공과 실패 원인에 대한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탐색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을 것인지 또는 떠날 것인지를 고려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학생의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학적응의 원인, 과정 및 실제 실행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검사도구의 척도 재정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니즈에 대해 분석하고, 니즈에 근거하여 대학이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척도와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학적응 과정에서 학생의 니즈는 무엇이고,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별도의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검사 시행의 결과와 대학의 전략이 통합적으로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시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하고 심화된 대안을 객관적 검사 도구를 활용한 진단을 통해

분석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Y. Kim,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 Dropouts' Mobility Paths and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3, no.3, pp.131-163, 2012.
- [2] C. K. Cha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rend research projects," KRIVET, 2012.
- [3] Ministry of Education, 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5.
- [4] S. Y. Le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ollege Students' Re-enrollment Inten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6, no.3, pp.277-299, 2008.
- [5] S. Y. Kim, "The Development of Scales on Rating College Students' Academic Persistence and the Analysis of Technical Qua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3, pp.1-29, 2010.
- [6] V. Tinto,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In B. Clark. and G. R. Neave(eds.)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3*. New York: Pergamon Press. pp.1697-1707, 1992.
- [7] J. M. Braxton, A. S. Hirschy and S. A. McClendon, "Understanding and reducing college student departure,"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vol.30, no.3, San Francisco: Jossey-Bass. 2004.
- [8] J. H. Kim,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llege, Social Variable, and Dropout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2, no.30, pp.249-266, 2011.
- [9] R. S. Lauzarus, "Patterns of adjustment," NY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 1976.
- [10] Astin, "College dropouts: A national profile," *ACE Reports*, vol.7, pp.50-60. 1993.
- [11] S. S. Kim, "A exploratory study on withdrawal and transfer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influence

- of college-choice reason and satisfaction afterward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5, no.1, pp.227-249, 2008.
- [12] E. Lim and Y. Y. Kwak, "Female College Students' Leave of Absence Types and Related Fact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0, no.2, pp.231-248, 2011.
- [13] S. D. Brown, T. Selena, H. Denada, T. Kyle, F. Xiaoyan and W. L. Robert,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persistence: A meta-analytic path analysi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72, no.3, pp.298-308, 2008.
- [14] Y. J. Yoo, K. H. Lee, A. K. Chung and Y. H. Lee, "The Predicts of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Support on Learning outcome -Satisfaction,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Colleg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14, no.1, pp.32-39, 2011.
- [15] J. A. Lee,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pp.2329-2344, 2012.
- [16] J. D. Parker, A. Hogan, M, J. Eastabrook, J. M. A. Oke and L. M. Woo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udent retention : Predicting the successful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university," *Person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1, pp.1329-1336, 2006.
- [17] G. P. Hickman, "Influence of parent life styles on th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raditional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1, no.1, pp.41-54, 2000.
- [18] H. E. Kim and K. W. Kim, "Influence of friendship to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 out and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15, no.4, pp.89-109, 2011.
- [19] Y. S. Ryu, "Influence of friendship to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 out and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42, pp.245-263, 2012.
- [20] K. H. Kim, M. G. Na and J. H. Kwon, "Verification of a Relational Model among Professor's Support,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5, no.1, pp.45-69, 2014.
- [21] K. B. Porter, "Current trends in Student retention: A literature review," *Teaching and Learning*, vol.3, pp.3-5, 2008.
- [22] H. J. Chu and S. H. Cha,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Four-Year College Students' Stop-Ou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9, no.1, pp.277-293, 2011.
- [23] M. S. Choi and J. H. Kang, " Qualitative Study about Experience of Students' Dropping Ou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5, no.7, pp.203-225, 2008.
- [24] M. K. Jeong,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Campus Life Adjustmen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sters dissertation, Yeongnam University, 2010.
- [25] H. R. Lee and J. Y. Song, "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2, pp.393-407, 1994.
- [26] D. Hossler, "Managing student retention: Is the glass half full or half empty, or simply empty?,"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vol.81, no.2, pp.11-14, 2005.
- [27] S. Aldridge and J. Rowley, "Measuring customer satisfaction in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vol.6, no.4, pp.197 - 204, 1998.
- [28] L. Z. Archambault, "Measuring service performance, student satisfaction and its impact on student retention in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Proceedings of the EDU-COM 2008 I International conference*, Perth West Australia, 2008.
- [29] M. M. Khan, I. Ahmed and M. M. Nawaz "Student's perspective of service quality in higher

learning institution : An evidence based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vol.2, no.11, pp.159-164, 2011.

[30] <http://nsse.indiana.edu/>

저자 소개

김수연(정회원)



- 2011년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02년 ~ 2010년 : 대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주관심 분야 : 고등교육, 교육불평등,
대학생의 적응과 중도탈락>